

## 이기영 이사장, 국민포장 수상

KFPA 이기영 이사장은 11월 7일(금)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52주년 소방의 날' 시상식에서 국민포장(國民褒章)을 수상했다. 국민포장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이기영 이사장은 전국의 중대형 건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통해 건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화재 및 재해 예방교육과 화재안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이기영 이사장은 “국민포장은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결과로서 직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며, 대한민국 안전에 더욱 공헌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방의 날' 기념식은 수많은 재난의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묵묵히 지켜온 소방공무원 등 안전업무 관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9일 전후에 시행하는 행사로서 올해 52주년이 된다.



## 화재안전 봉사활동 펼쳐

- 임직원 성금 500만원도 전달 -

KFPA 이기영 이사장은 12월 13일(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삼동소년촌'을 방문하여 화재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5,001,310원을 전달했다.

1952년에 설립된 삼동소년촌은 0세~만18세의 남아 어린이가 80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KFPA 이기영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소방시설, 피난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을 점검한 후 재원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화재 초기 시 큰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예방교육 자료, 생활필수품을 제공했다.



## 「제1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식」 개최

KFPA는 10월 24일(금) 11시 KFPA 1층 대강당에서 불조심 어린이마당 수상자와 손해보험회사 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식』을 개최했다.

KFPA와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부와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가 후원한 『제1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화재 및 자연재해에 관한 조기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안전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년보다 34개 학급 873명이 많은, 653개 학급 16,991명이 참여했다.

KFPA는 참가 어린이 전원에게 화재 및 자연재해에 관한 지식을 익힐 수 있는 『불조심 길라잡이』 교재를, 지도교사에게는 『화재예방교육 지도서』를 배포하고 두 달간 자율적으로 학습하게 한 후, 평가시험을 통해 17개 학급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을 차지한 대구울원초등학교 5학년 4반에는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개 학급에는 소방방재청장상과 상금 80만원, 우수상 4개 학급에는 KFPA 이사장상과 상금 60만원, 불조심 어린이상 10개 학급에는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장상과 상금 40만원을 수여하였고, 2년 연속 수상한 학교에는 ‘화재안전 우수학교 인정패’를 수여하였으며, 올해는 울산 신정초등학교가 3년 연속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한편,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는 1997년 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5,511개 학급 168,297명이 참가하였으며, KFPA는 어린이 안전교실, 어린이 화재예방교육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